

KFC 파업 장기화 “TDI 생산차질”

TDI 가격 2300-2400달러 강세 영업손실 심각 ... 노사협상은 계속

한국화인케미칼(대표 허달)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화인케미칼의 전면파업은 TDI(Toluene Diisocyanate) 부문의 장기불황에 따른 노사간의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에 대한 견해차이로 야기됐으며 12월14일 현재 42일째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에 따라 TDI 등 주력제품의 생산과 판매 차질이 심화되고 있으나 노사간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FC 관계자는 “최근 TDI 시세가 반등한 시점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어 영업손실이 매우 커 조속한 협상타결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TDI 가격은 미국을 덮친 대형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공급이 타이트해 9월 CIF China 톤당 2300-2400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TDI는 미국 Huntsman의 4만톤 플랜트가 허리케인 Katrina와 Rita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가동중단했고, Lyondell Chemical의 16만톤 플랜트가 폐쇄되면서 수급타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12/15>